

정부, FTA 추가협상 수용

“노동·환경 제외 5개분야 기존 협정문 명확히 하는 수준”

정부가 미국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제의에 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제기된 미국측의 FTA 추가협상의 제의에 대해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측이 제안한 노동과 환경분야를 비롯, 7개 분야의 내용은 지난달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 투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의 제안내용과 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회의 뒤 발표자료를 통해 “추가협 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1일 미국 대표단 방문시 미국측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22일 협의결과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

을 평가한 뒤 협상결과에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한국이 오는 30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것이지만 나중에 합의 내용의 일부를 다시 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프랑스 등 외국 언론과 회견에서 “16일 유럽으로 떠나기 직전에 7개 분야에 관한 추가 협상을 미국으로부터 요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노동과 환경 조건에 관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협정의 대부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가지는 확실하다. 6월 말까지 서명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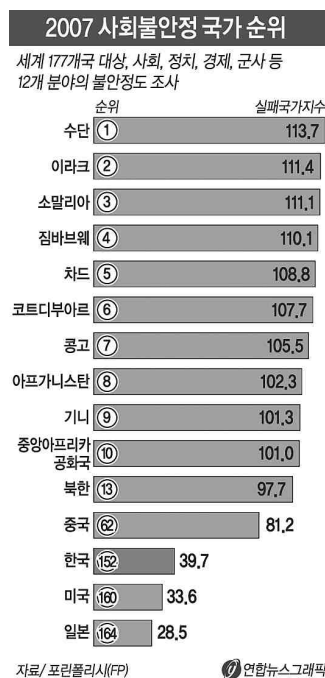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중도시 된 텍사스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폭우가 쏟아진 18일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셔먼 마을 교외의 물에 잠긴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뒤 되돌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北, 세계 13번째 불안정국가

2007 실패국가지수...한국은 152위



북한의 사회불안정성이 세계에서 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단이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로 분류된 것을 포함해 아프리카 8개 국가가 가장 취약한 국가 10위권에 들어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따르면 평화자금과 공동으로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사회, 정치, 경제, 군사 12개 분야에 걸쳐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불안정도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북

한국의 2007 실패국가지수는 97.7로 조사 대상 국가중 13위번째로 높았다.

특히 북한은 파키스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 나라로 분류되는 실패국가 10위권에 들어 아프리카 지역이 되고 있다고 FP는 우려를 표시했다.

2006년 지수에서 123위였던 한국은 2007 지수에서 152위로 불안정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순위변화는 올해의 경우 대상국이 31개국 늘어나 큰 의미는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핵 폐기때 중유 제공...쌀은 협의 봐 가며”

<北-IAEA>

한미, 북·2·13 합의 이행 속도 맞춰 지원

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5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쌀 차관 40만도 다음주에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측의 협의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북한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 시점을 7월 하순으로 잡고 6자회담도 핵시설 폐쇄 이후로 잡으면서 2·13합의 이행과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하기 전에는 받을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폐쇄 시점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중유 지원도 늦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당초 IAEA 감시 검증단 입북 시점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방콕발타이시아(BDA) 문제로 시간이 많이 보낸 만큼 이제 북한이 행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보상조치의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 18일 협의에서도 북한의 2·13합의 이행 속도에 맞춰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천 본부장과 합의에 앞서 “핵시설 폐쇄는 관련국들이 이미 많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 협의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천 본부장은 “폐쇄에 걸리는 기간은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북 쌀 차관 지원과 관련,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IAEA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쌀 차관 제공 시기를 결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IAEA와 북한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빠르면 이달안에 쌀 제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핵시설 폐쇄 시점을 두고 북한과 한국,미국 등이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2·13합의 이행 속도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선천 송유관 폭발 110여명 사망”

대북 인권단체 밝혀...정보당국도 “정보 입수 확인중”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사장 박분)은 “지난 6월9일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110여 명이 사망한 송유관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19일 전했다.

정보 당국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벗들은 “평북 피현군 백마리에 있는 백마 분화화학공장에서 평남 대동군까지 200t의 휘발유를 공급하던 중 선천군의 어느 논밭을 가로 지르던 노화된 송유관이 터지면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며 “밭에 있던

주민들이 저마다 용기를 들고 나와 흘러나오는 휘발유를 담느라 야단법석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1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시신들은 모두 불에 너무 타까만 덩어리가 됐다”고 밝혔다.

좋은벗들은 “휘발유가 kg당 2천500원씩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서로 앞 다퉈 담아가다 누군가의 실수로 불이 붙었다”며 이튿날인 10일에야 겨우 불이 꺼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든로즈호 침몰은 진성호 책임”

한·중 최종 결론...형사처벌키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는 마지막 순간 왼쪽으로 피한 세인트빈센트 선적 진성호에 주요 책임이 있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진성호는 사고발생후 관할 해상당국에 즉시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독자적으로 이탈하는 등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한·중 정부 합동사고조사단은 19일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의 주요 책임은 진성호에 있으며 구난신호를 발송하지 않은 골든로즈호에는 부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측 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심판관은 “중국의 위험이 있는 선박한 상황에서 골든로즈호는 오른쪽으로, 진성호는 왼쪽으로 피했다”면서 “진성호의 피항조치는 ‘절대 왼쪽으로 피하지 말라’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해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주요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 조사단장인 왕진구 교통부 해상국 부국장은 “진성호는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도 위반했다”면서 “중국 관계당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성호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오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 2년제이상 졸업자
- ◎ 남,녀(30세미만)
-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 광주지원 TEL. 062)511-6359
 교육정보연수원 |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Open기념 향트침매, 장수올름침매 한정판매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 한정판매)

JSD-비트Q

1,470,000원 (5조 한정판매)

미가엘 거실장식세트

미가엘 5인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일도 7층** ☎062)350-8764